

# 서점가 휩쓰는 '논리책' 열풍의 허실

## 독서경험 뒷받침 안된 상태에서 비논리의 만병통치약인양 오해

지난해 우리 출판·서점가의 최대 히트상품이었던 '논리학' 책들이 울어들어서도 여전히 서점의 판매대를 점령하고 있다. 한창 피크를 이루던 작년 수능시험과 대입논술고사 전후의 한두달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위력은 꺾이지 않고, 신간들도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는 것.

현재 서점가에 나와 있는 책들은 대략 7, 80여종. 아마 단일 품목으로서의 최다종수가 아닌가 싶을 만큼 엄청난 수의 이 '논리' 관련 책들은 "암기중심의 시험"에서 "생각하는 시험"으로 대입고사의 경향이 바뀌면서 그 주 대상층인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필독서'로 꼽히고 있는데, 이 과잉의 또 한 원인제공자에는 일반인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기이한 현상'으로 비쳐져 왔다.

그 일부의 목록을 살펴보면, 「논리와 사고」(김준연 외, 문경) 「영터리 논리 길들이기」(E. 데이머, 새길) 「생각하는 샘을 찾아가는 논리산책」(김만식, 집현전) 「논리학을 다섯 마당」(허남정, 실천문화사) 「재미있는 논리 + 논술 이야기 1·2·3」(황경식, 열림원) 「논리 시작 오류 끝 1·2·3」(강영계, 회성) 「논리와 퀘변」(김득순, 새날) 「내 친구 논리 이야기 상·하」(편집부, 재능교육) 「반값다논리아 1·2·3」(위기철, 사계절)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술」(L. 루비, 서광사) 「논리 속의 철학 논리학의 철학」(이진경, 새길) 「논리 게임」(B. 포스트, 천지) 「70일간의 논리학」(N.C. 애드미스톤) 「논리는 내 친구」(M. 번즈, 경원각) 「생활 속의 논리학」(정경임, 지양사) 「역설의 논리학」(노자키 아카히로,

**“논리에는 본래 내용이 없다. 논리학 공부는 논리적 사고가 ‘느’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 사고로 ‘정리’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작년 이래의 논리책 붐은 논리적 사고가 부족 ‘늘’기를 기대하는 독자들의 이상기대에 출판사들도 ‘느’쪽으로 몰아가 빚어진 것이다. 철학을 전공하는 누구도 논리학 책이 논리적 사고 자체를 길러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새날) 「논리적 사고의 기술」(V.R. 루기어로, 대유) 「알쏭달쏭 논리여행」(송명호, 한국교육평가원) 「철학속의 논리」(황경식, 철학과현실사)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R. 스멀리언, 자유사상사) 등 7, 80여종에 이르니 일일이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

가급적 친근하게 붙여진 그 제목들은 “논리(학)는 결코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즐거운 퍼즐게임과 같이 무척 재미있다”며 멈칫거리는 독자를 유혹하는 듯하다. 번역서, 국내저술, 전문학자의 책, 일반저술자의 책, 출판사 자체에서 엮은 것에 이르기까지 저자들도 다양하고, 내용구성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가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논리를 습득하게 한 것에서부터 우회적으로 흥미를 돋우며 엮은 것,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화를 들어 그 논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이르기까지 서술

형태도 다채롭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사례로 들고 있는 예문이 서로 같은 것도 많아 베껴쓴 의혹이 드는 책이 많고, 외국책의 성급하고 안일한 번역 혹은 편역으로 눈살을 찌프리게 만드는 책들도 적지 않은데다, 이념의 편향성, 곁핍기식의 서술에다 오류까지, 과열의 지난 1년을 거쳐오며 중수의 많은 만큼 문제 또한 많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사출판사 편집장은 “7, 80여종 가운데 쓸만한 것은 3, 4종밖에 없다”고 각박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0교수는 “2/3 정도는 잘됐고, 1/3은 가치가 없다”며 후한 점수를 주는 듯하다가도 “그 2/3 가운데 1/2은 너무 어렵거나 쓰는 사람조차 무슨 말인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서술한 곳도 눈에 띈다”고 말해 소수만이 제대로 된 책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 논리책을 본다고 논리적 사고가 형성되나?

그런데 문제는, 이같이 절반 가량이 ‘함량 미달’인 채로 쏟아져 나왔고,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논리책들을 보며, 그 내용상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라도 “논리학 책들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논리적 사고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 많은 독자들이 이 책들을 마치 ‘비논리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 너나없이 매달리는” ‘맹신’에 실소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잘 팔린다는 논리책을 사서 읽은 한 여고생은 “다 읽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통명스레 소감을 던지기도 했고, 한 셀러리맨도 “물론 재미있기는 한

데 원하던 논리적 분석력이 키워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독서결과가 출판사들의 ‘광고’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했다.

비등한 회의론, 냉소적인 비판은 이 분야를 전공하는 철학과 교수들과 풍부한 독서만이 논리적 사유력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독서가들이다. 「글썽의 논리찾기」(우리교육)의 공동저자 조광제(경남대 철학과강사)씨는 “논리교육은 합리적·분석적인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틀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나 논리라는 것은 본래 내용이 없는 것이다. 즉, 논리학 공부는 논리적 사고가 ‘느다’는 것보다, 논리적 사고로 ‘정리(정돈)된다’는 뜻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유형들—연역법이다 귀납법이다 식으로—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하다. 그 형식들을 걸어내고 나면 논리학에서 남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본래 논리학이다. 그런데 최근의 붐은 ‘늘’기를 기대하는 독자의 구미에 출판사들까지도 ‘느’쪽으로 몰아가 과열붐을 일으키는 것 같다. 물론 논리학책들은 나와야 하고 많이 읽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 유형들을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다. 철학자의 누구도 논리학 책이 논리적 사고 자체를 길러준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정리한다.

그보다 더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측들은 “지금 붐을 일으키는 논리책들은 논리학의 껍데기만을 가르치는데, 그것도 틀린 껍데기가 많다”며, 또한 “논리가 무엇인가”를 생각지 않고 “어떤식의 논리”만을 주입시키는 격이어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

##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저/김명자·김건 공역  
신국판 / 372면 / 4,500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으로 멸종의 위기 앞에서 인류에게 제시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관. 자연계 최고의 법칙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엔트로피 법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면서, 현존하는 세계관이 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S. 쿤 저/김명자 역  
신국판 / 308면 / 4,200원

지성사에 획기적 이정표를 제시한 현대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금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적 유산. 쿤은 과학의 진보가 누적적이라는 종래의 귀납주의적 과학관을 뿌리째 뒤 흔들어 놓으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과학혁명을 통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하이테크 달걀



- '93 과학기술도서상 과학기술처장관상 수상작  
- '93 문화체육부 추천도서  
현원복 저/신국판 / 314면 / 5,500원

첨단 기술, 그 무궁무진한 신세계를 열어본다. 로봇이 피자를 굽고 수술을 한다. 유전자 지도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인공혈액, 인공피부, 인공심장 등이 보편화되면서 생체공학 시대가 열린다. 퍼지 이론이 새 물결을 몰고와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맞춤 쌀, 홀로그램, 사탕과자 등 하이테크 식품들도 등장한다.

동아출판사 ☎861-4818



최근 다소 주춤한 듯 보이나 올해도 논리학 책의 강풍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그 결과의 하나로 '클럽 스쿨 보이'(알파하고 영특한 아이들), 다시말해 조속하고 요령있는 아이들만 양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다양한 읽기(세계)의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논리라는 기술을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쁘다"는 얘기가.

또 어른들까지 가세한 논리학붐을 심하게 비판하는 쪽들은 이같은 논리학의 붐이 서구적 합리주의에 대한 동양 특유의 직관적이고 정감적인 '비논리적' 사고의 '열등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도 한다. 그것은 청소년뿐 아니라 이 책들이 일반 성인들에게도 폭넓게 읽혔던 것에서 논증되는 것인 바 동양의 정서, 동양인의 사유체계 속에는 동양 특유의 논리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서구적 사고체계의 틀인 논리학에 너나없이 가세한다는 것은 곧 열등감이 아니고 무엇

이나는 지적이다. "서구에서는 논리학이 가진 형식주의의 한계 때문에 교과과정에서 논리학 보다는 윤리학이나 철학에 더 주력하고 있는 마당에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그 학문의 핵심인 논리학을 마치 숙지하기만 하면 저절로 논리적 사유가 형성되는 것인 양 '착각'한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금의 이 기형적인 붐을 설명해낼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 잘된 일이다, 다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비판하는 쪽이 전적인 부정이 아닌듯 그 긍정도 물론 제한적인 긍정이다. 안양고등학교 수학교사 방혁(35) 씨는 "천편일률적인 교과서 내용으로는 아이들의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기가 매우 힘든데, 이 책들은 이야기 속에 논리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논리에 대한 이해를 한결

빠르게 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전문가가 많이 동원되지 않고 비전문가들에 의해 많이 찍어지고, 전문가들이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재미있는 논리+논술 이야기」의 저자 황경식(서울대 철학과) 교수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우선은 논리학을 긍정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은 萬學의 예비학"이라고 갈파했듯 논리학이 널리 학습되는 것은 그 모든 학문의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로 기초단기의 붐은 잘할수록 좋지 않은가며 되묻는다.

하지만 황교수는 "논리학은 뼈대를 가르치는 공부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 붐을 계기로 내용과 살이 붙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살'은 토론하고 논쟁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토론과 논쟁은 또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일이 전제될 때만 시작된다. 결국 황교수는 "무조건 암기하는 공부라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공부, 양질의 독서를 하게 하는 계기로서의 논리학을 긍정"하는 것이지, 논리책 자체만 많이 읽히는 현상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 논리는 기초, 그 다음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논리학 책은 당분간 더 생산되고 더 많이 팔려나갈 것이다. 「도서신문」(대표 홍성일)이 창간준비호를 내며 출판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도 논리학 책이 여전히 선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상당

수(92%)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고 답변, 논리학 강풍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더 흘러 보아야 알 것이다. 지난 연말 대입고사가 있기 한두달 전을 최고절정으로 "엄청난 양" "단군 이래 최대"의 표현까지 사용되며 말 그대로 날개돋힌듯 팔려나갔던 논리학 책이 최근 다소 주춤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를 예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지금이 신학기 초여서 그렇기도 하고, 올해 본고사를 보겠다는 학교가 40여개교로 늘어난다는 보도가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대입시험이 본고사로 회귀될 경우 빚어질 과열과외를 우려해 본고사의 과목을 '논술'로 한정해 줄 것을 종용, 실제로 본고사를 포기하고 논술만으로 축소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여서 그렇게 될 경우 논리학 책이 다시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써여져야 하며,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나에 있는 것 같다. 한두권쯤 괜찮은 논리책을 골라 읽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독서의 효과는 두루두루 좋은 글들을 골라 읽은 학생(사람)들에게는 '구슬을 켜는 실'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한 독서의 베이스가 없는 이들에게는 펄 구슬이 아예 없기 때문에 논리학책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이 거의 없다는 게 지각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정혜옥 기자

###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기술

L. 루비 지음/서정선 옮김/160면/3,500원

논리학 응용서이자 일반 교양서로서 논리학에 나오는 기본적인 규칙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것들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응용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모범을 창출한다.

### 철학과 실천

H. 오폴츠 지음/이종철 옮김/176면/4,000원

청년 마르크스의 사상 형성 과정을 '실천' 개념에 입각하여 추적 정리한 것으로, 국가의 본질, 계급 투쟁의 역사적 경향, 생산력과 생산관계 등과 같은 유물론적 역사관의 근본 개념들을 다룬다.

### 형이상학

B. 오운 지음/김한라 옮김/384면/8,500원

형이상학의 중심 개념과 주된 문제 즉 존재, 수나 집합, 논리적 허구와 논리적 구성물, 보편자와 개별자, 추상체의 지위, 자아동일성, 사물과 사건의 대립 등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소개한다.

### 철학적 탐구

L. 비트겐슈타인 지음/이영철 옮김/384면/8,500원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한사람이며 분석 철학의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적 저작으로, 의미, 이해, 명제, 논리의 개념, 수학의 기초, 의식의 상태 등에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